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인 의 식

(주)중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1955년 11월 5일 대전 생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졸업(1978년)

인 의 식 건축사와 가깝게 지내게 된 것은 몇 년이 안 된다.

매사에 열심이고, 이번 원고청탁도 남에게 나타나는 것이 부끄럽다고 극구 사양하는 것을 겨우 인터뷰하였다. 지금은 건축경기가 극히 불투명하여 예전에 설계 좀 한다고 이름이 나있는 건축사들에게도 힘든 시간이다.

인 의 식 건축사의 경우 건축설계에 올인 하는 것은 물론 인테리어, 조경, 조명 등 전문영역으로 치부하여 남에게 외주 주어 버리는 것을 본인이 다하려고 죽을 힘을 다한다.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토탈 디자인 개념에서 그러는 것이다.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이득도 있을 것이다.

중세시대의 거장들이 미술, 조각, 건축까지 망라하여 관여한 것을 생각하면 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장인정신이 오늘 그가 불경기도 오뚝이 같이 잘 버티나가는 중좌다. 그리고 그의 대표작이 된 '덕평휴게소'에 가면 그의 노력이 잘 드러나 있다.

최동규 편찬위원장

공중에 떠있는 접시주택, 물속의 주택 등의 어처구니없는 상상을 어린 시절부터 하였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 우연히 백과사전에서 아이소메트릭으로 된 주택평면과 투시도를 보게 되었고, 이 평면을 입체로 상상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집'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 지나고 보니 이것이 건축을 하게 된 첫 동기가 된 것 같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건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더군다나 큰형님이 건축과에 진학해 건축서적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다양한 주제로 '나의 집'에 대한 평면계획과 스케치를 하게 됐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일문화원에서 독일 건축을 소개하는 순회전시회가 대전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자전거를 타고 먼 거리까지 가서 구경하였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 스킵플로어 주택을 혼자 생각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전시회를 통해 '우물 안 개구리' 입을 깨달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진학을 위해 도서관에서 합숙하던 때도 교과서 대신 주택설계를 하다가 지도 선생님한테 여러 번 호된 질책을 받은 기억도 난다.

그 당시 전문지식이 없이 오직 순수한 상상만으로 계획하였던 주택들로 '공중에 떠있는 접시주택', '옥상에 사과나무와 굴뚝이 있는 분화구 모양의 지하주택', '물속의 주택', '숲을 유리로 덮고 타잔처럼 살던 주택' 등 현실성은 없지만 재미있는 작품이었다.

건축과 수업만으로 부족해 공간이라는 동아리에 가입하여 건축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다

대학교에 진학한 후 지겨운 수학, 영어 없이 건축만 할 수 있다는 해방감으로 즐거운 나날이 이어졌다. 토요일이면 아침에 청계천변 중고서점을 찾아가 저녁때까지 건축 관련서적을 찾아다녔고, 새로운 책을 찾으면 값진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이 행복하였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 포만감을 느낄 수가 없어서 공간(SPACE)이라는 건축동아리에 가입하여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합숙훈련을 통해 함께 공부하고,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동료 혹은 선배들과 열띤 토론을 하며 지낸 경험은 나와 다른 동료의 생각과 전개방식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계기였다.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고 형님과 누나가 대학에 다녀야하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없이는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시간 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건축 씨클 활동에 몰입하면서 보낸 대학시절은 남들과 같은 낭만과 추억은 없지만 나름대로 보람된 시간을 보낸 것 같다.

4학년말에 중동 붐으로 수많은 건설회사가 와서 홍보하며 미리 입사예약을 받던 시절이었고, 대부분 건축과 학생들은 건설회사에 입사하였다.

그 당시 설계와 시공의 급여는 2배정도 차이가 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설계에 대한 가치를 돈과 비교할 수는 없었다.

대학졸업 후 공간에 실습생으로 취직하고, 김수근 선생님 앞에서 난생처음 담배를 피우다

1978년 12월에 김남현 선생의 도움으로 공간에 실습생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모든 것들이 새롭고, 그동안 생각했던 건축과 다른 차원의 건축을 경험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한 시절이었다. 처음 김수근 선생님과 면담할 때에 첫 질문이 “담배를 피울 줄 아는가?”였고, “건축을 제대로 하려면 모든 것을 경험해 봐야 돼. 이 자리에서 피봐.” 였다.

건강에 해로우니 담배는 피지 말라는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태어나서 처음 피운 담배가 되었다. 지금도 많이 즐거울 때나 우울할 때는 가끔 피게 된다.

짧은 공간생활을 뒤로하고 공병 기술장교로 군에 입대하다

짧은 기간이지만 성북동 주택을 계획할 기회가 주어졌고, 계약이 되는 모습을 보고 공간을 나와 공병 기술장교로 군에 입대했다.

훈련시절에 야간 보초를 설 때 달을 보면서 건축에 대한 하나의 주제로 몰입하면 달이 점점커지면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뒤바뀌는 경험을 하였고, 그때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경험할 수 있어 다음번 보초까지 대신 선 기억도 있었다.

훈련을 마치고 김해의 육군공병학교에 교관으로 차출돼 건물건축과 제도를 가르치며 보낸 3년은 여유롭게 시간을 갖고 건축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금요일 저녁에 부산 서면 서점까지 들러 일주일동안 읽을 책을 사가지고 들어와 외박을 나가 텅 빈 BOQ에서 혼자 책을 읽던 기억도 난다. 그때 읽었던 책들이 제대 후 지금까지 읽었던 책보다 많았던 것 같다. 그 당시 건축개념과 관련된 책 이외에 건축과 연계된 도시계획, 인테리어, 조정, 구조, 소방, 전기, 설비 등 건물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어 요즈음까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군제대 후 결혼하고 선배가 운영하는 사무소에 입사하다

1982년 3월 제대 후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선배가 운영하는 건축사 사무소인 건축공간에 입사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1984년에 건축사자격을 취득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이곳에서 한양대 유희준 교수님과 관련된 여러 개의 성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추후 인테리어 설계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 사무소가 어려워지고 급여가 여러 달 밀리면서 회사를 돕는 차원에서 독립하였다

1987년 사무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급여가 여러 달 밀리면서 연봉이 제일 높은 내가 나가 독립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여, 1987년 말에 퇴사하고 사무소를 개업하였다. 충분한 준비 없이 독립한 관계로 설계 수주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사무실의 환경도 최악이었다. 처음 청담동에 있는 조그만 중국식당의 구석을 합판

으로 막아 2평 공간에 제도판 2개를 설치하고 시작한 사무실은 2명의 직원이 앉을 자리가 없어 교대로 작업을 하고 건축주를 만날 때는 주변의 커피숍에서 미팅을 하였다. 점심시간을 중국식당의 밀가루 반죽을 치는 소리에 합판이 흔들리고 날리는 밀가루가 합판사이로 들어와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지금생각하면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한 당시 상황은 너무 무모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초기에 유희준 교수님이 주신 일들은 규모가 작지만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주었고, 주어진 프로젝트는 건축주가 감동을 느낄 만큼 최선을 다하였다.

1988년 연면적 3만평 규모의 대형프로젝트를 맡아 최선을 다하였고, 이후에 5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회사로 성장했다

1988년 여름 그 당시 3만평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소개받아 최선을 다하여 진행하였더니 건축주가 사무소 규모를 알면서도 “내 건물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 다음에 자네라고 생각하네”라는 말과 함께 설계 계약을 해주었다. 그 후에 같은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세포가 분열하듯이 계속 수주되고 ‘현대증권 울산사옥’, ‘대교사옥’ 등 대규모 사옥의 설계경기에 당선되면서 어느새 직원이 50명이 넘는 중규모 사무소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규모가 커지면서 초기의 마음과 달리 프로젝트에 대한 관여도가 떨어졌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건축주와 협의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러 다닌 기억으로만 채워졌다.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던 건축에 대한 꿈은 먼 이야기가 되어갔다.

IMF가 닥치면서 많은 일들이 중단되고 그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는 빛이 남게 되었다

IMF가 닥치면서 그 많던 일들이 중단되었고, 그 당시 자금력이 있던 유명한 의류회사 사옥 설계도 ‘건축공사비로 같은 규모의 건물을 땅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

그 많던 인원과 그동안 사옥을 지으려고 모아놓았던 자금이 IMF 터널을 통과하면서 사라졌고 IMF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는 15명의 직원과 얼마의 빛을 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남들과 같이 직원을 초기에 정리하고 변신하지 못한 대가가 처절하였다.

나에게 IMF는 그동안 잊어버렸던 어렸을 때의 꿈을 되살리는 기회가 되었고 그동안 디스크로 사무소에 관여 못하였던 장명희 건축사가 관여하면서 사무소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장 건축사는 개념을 정립하고 나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풀어 완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1년 ‘대전대 둔산 한방병원’과 ‘금강휴게소’를 시작으로 초기의 마음과 열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금강휴게소, 덕평휴게소로 한국건축문화대상과 건축가협회상을 받다

100회 이상의 미팅을 가지며 정성을 쏟은 금강휴게소는 2004년 건축문화대상 우수상과 한국건축가협회상을 받으며 사무소를 오픈한 이후 처음으로 건축 작품상을 받았으며, 그 후 이것이 씨앗이 되어 연결

된 제포빌딩은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상을 수상하였고, 덕평휴게소는 2007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대상과 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하였다.

두 개의 휴게소의 완성으로 후속 일들이 수주되다

또한 이들과 연계된 프로젝트가 계속 수주되어 현재는 휴게소와 클럽하우스, 병원, 주택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사무소가 크나 작으나 다 문제점은 있다. 그러나 과거의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작품의 질보다 수금문제, 직원문제, 협력회사 코드문제 등 건축외적인 문제가 주제였으며, 작품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고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섬세한 감성표현이 힘들었다.

현재 회사 규모는 10명 정도의 직원으로 재미있게 운영하고 있다

현재 회사의 규모는 10명 정도이며, 부담 없이 작품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적정인원이라 판단하고 앞으로도 인원을 충원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 사무소의 강점은 인테리어, 조경, 조명 디자인까지 다 관여하여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회사의 강점은 주로 건축 뿐 아니라 인테리어, 조경, 조명 디자인까지 관여하여 프로젝트의 가치를 높이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여러 악기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듯이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이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설계비를 아이템 별로 분리하여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다른 분야의 능력 있는 자라도 한 공간에서 다른 개념의 목소리를 내면 음악의 소음처럼 바뀌어버린다. 그러므로 소규모 사무소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대규모 사무소에서 느낄 수 없는 미세한 감성공간까지 표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우리 사무소의 약점은 받은 설계비보다 더 많은 일을 해주어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축주가 요구하는 이상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손익계산이 잘 안 된다는 점이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이 큰 단점이다.

공사는 손대었다가 적자보고 손을 떼었다

초기에 설계 외에 인테리어 공사도 추가해볼 생각도 해보았다. 실제로 공사를 해보니 적당히 마무리하여야할 부분을 설계자의 욕심으로 메우다보니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으며, 그 이후로 인테리어 공사는 하지 않았다.

현재 하고 있는 대로 꾸준히 설계를 할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처음부터 욕심이 크지 않아서 현재의 삶대로 꾸준히 좋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가장 행복 할 것 같다. 작은 일이라도 건축주와 함께 최선을 다하여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다짐한다. 가끔 미술작가 작품을 보면 배고팠던 신인시절에는 순수한 혼을 쏟아 작품에 힘이 느껴지지만, 세월이 갈수록 세련미가 보이지만 자신보다 타인을 의식하여 화려하게 변신하는 모습을 본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지만 나는 순수한 혼으로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편이고 장 건축사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편인데, 상호보완적이다

함께 프로젝트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대화를 나누다보면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구조가 많이 다른 점을 느낀다. 부부가 같이 설계를 하다 보니 디스커션이 중요한데, 상호 보완되는 점이 많다. 좌뇌와 우뇌가 사용하는 부분이 다르니 내가 이성적으로 접근했다고 보면 장 건축사는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보완해준다. 의견이 엇갈릴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좋은 것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 편이다. 특히 작품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강하게 비판하지 못하지만, 장 건축사의 경우 과감하게 비평할 수 있으니 그 점이 도움이 된다.

대형사무소와 소형사무소는 향후에도 공존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생하며 상호보완의 관계가 되면 좋겠다

대형사무소와 소형사무소는 나름대로 공존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형사무소가 종종 영역을 침범하여 소형사무소를 거느리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느 시대에도 공룡과 바퀴벌레는 공존했다고 생각한다. 공생하고 보완관계가 되면 좋겠다. 나는 차라리 소형사무소를 택할 것이다. 오히려 소형사무소의 미래는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병원도 종합병원과 소형병원이 있으며, 아주 똑똑한 의사로 명성이 나면, 이를테면 '심장 전문의는 누구' 이런 방법으로 소형병원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다만 소형사무소는 일정규모 이상의 일을 수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문제이다.

기회는 온다. 그때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두라고 말해주고 싶다

후배 건축사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몇번도 찾아 온다는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요즘과 같은 혁명적인 주변환경의 변화는 불변의 진리처럼 여겨졌던 개념들을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융복합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개척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에 의하여 건축을 선택하였다면 건축을 일로 생각하지 말고 놀이처럼 즐기도록 권하고 싶다. ■